

이름 배주화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일본 羽衣国際大学
파견기간	2011.09.20~ 2012.7.31
귀국여부	네 ( ) 아니오 ( 2012.08.01 )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航空ビジネス論 →항공에 대해 흥미로운 것들도 많이 배운다.</p> <p>観光集客論 , 国際観光論 →이 두 수업은 같은 교수님이었는데 수업을 빨리 진행하시고 필기도 들으면서 직접 해야했어서 좀 힘들었다.</p> <p>ビジネス実務 2 →일본에서의 취업을 위한 수업인데 수학은 기초적인 것들을 배워서 따라가기 쉽지만 일본어는 일본인들도 어려워하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좀 힘들었다.</p> <p>観光レジャー政策論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업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듣기 편한 수업이었다.</p> <p>日本文化特講 3 →고대 일본에 대한 수업이어서 어려운 한자도 많이 나오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어려웠다.</p> <p>日本語表現法 3 →교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셨다. 수강하는 인원수가 적어서 토론 수업같이 진행되었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바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다.</p> <p>専門ゼミナール 3 →이 수업은 일본에서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하는데 이 수업에서 일본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p> <p>観光まちづくり論 1 →한 지역을 어떻게 관광지역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수업이다.</p> <p>テーマパーク論 →각종 테마파크에 대해 배우는 수업으로 특히 성공한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 재팬에 대한 내용이 많다.</p> <p>日本語基礎 2 . →일본어 기초 또한 필수과목이었고 일본어 능력에 도움을 많이 줬다.</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日本文化特講 1 →일본의 문화에 대한 강의로 전통 미술이나 공연 등의 일본 전통예술을 배우는 수업이다.</p> <p>日本語表現法 1 →일본의 신문사설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재미있다.</p> <p>専門ゼミナール 4 →필수과목이고 거의 취업이야기를 많이 한다.</p> <p>貿易交渉論 →무역에 대한 수업이다.</p> <p>中国語 1 →중국어 수업으로 중국어에 흥미가 있다면 들으면 좋을 것 같다.</p> <p>現代経済学, 暮らしと経済 →같은 교수님 수업이며 수업 내용도 경제학에 대한 내용으로 비슷하다. 현대 경제학이 좀 더 어렵고 깊이 들어가는 수업이다.</p> <p>経済新聞の読み方 2 →경제신문으로 경제흐름도 알고 일본어도 배우고 유익한 수업이다.</p> <p>心理学 →수업시간에 가끔 심리테스트도 하고 내가 흥미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다.</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등록금 외에 일본 학교에 따로 지불해야 했던 비용은 없었던 것 같다.

##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p>학교기숙사( ○ ) : パストラル 홈스테이 (   ) 외부 아파트(   ) 기타(   )</p>
숙소비용	월 30000엔
숙소평가	학교랑 가까워서 좋았고 숙소도 깨끗하고 넓었다. 혼자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직접 요리 ( ○ )</p>
식사비용	월 20000엔
식사평가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만들어 먹거나 사먹었을 수 있

	었기 때문에 좋았다.
보험	여행자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께 서 따로 들어주셨고 일본에서 의료보험으로 매달 2000엔 정도가 나 갔다.
한달 생활비(대략)	숙소 및 식사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에 3만엔 정도로 생활했다.

###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다른 학교에 미리 간 친구가 이것저것 말해줘서 그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무선공유기는 꼭 사와라 라던가 드라이기는 가져오지 마라 안되거나 바람이 너  
무 약해서 여기서 사서 써야 한다.' 등등이 있었다.  
엔고현상 때문에 오기 전에 이것저것 생활필수품도 많이 사왔었는데 초기에 올 때 짐 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몇 개정도 가져오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도 100엔샵 등 이런저런 저렴한 마트들이  
많으니깐 그렇게 힘들게 다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초반엔 택배도 많이 받았는데 점점 필요한 건  
여기서 다 사서 쓰게 되는 것 같다. 오기 전에 이것 저것 필요한 것에 대해 너무 조급해 하지 않  
아도 될 것 같다.

###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 일본에 와서 모든 것이 신기했고 하루하루 즐겁게 지냈다. 생각했던 것 보다 기숙사도  
좋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도 너무 편하고 좋았다. 다른 학교에서 온 한국인들도 많았기 때  
문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딱히 한국이 그리다 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즐겁게 지낸 것 같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서 학생부에도 들어갔는데 그때가 마침 학교에서 가장 큰 행  
사인 축제준비로 한참 바쁠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보냈다. 그러면서 일본 대학교의 학생  
부는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생부 아이들과도 친구가 되  
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목요일마다 회의를 했는데 학생부 대부분이 간사이 사투리를 썼고  
일본어에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이 없었다. 사실 회의 때마다 멍 때리고 있을 때

도 많았다.

일본에서 유익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상담도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들께 자주 찾아갔던 것도 참 좋았던 일 같다. 이런 나에게 다들 친절하게 클럽들도 소개해 주시고 행사정보도 알려주셔서 클럽 견학도 많이 다녔다. 그 중에서 차도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만화에서만 봐왔던 것을 하니가 뭔가 신기했다. 한국인이고 일본에 온지 얼마 안 된 나에게 모두들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배려해주셨다.

학교에 한국클럽이라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만든 클럽이었는데 한국 친구가 여기에서 한국어 수업을 해주고 있어서 나도 가끔 가서 같이 수업도 하고 한국 음식이나 일본음식 만들어 먹거나 할 때 같이 모여서 놀았다.

나는 오사카로 교환학생을 온 것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큰 도시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관광지로 바로 옆에 교토, 고베, 나라도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놀러 다닐 수 있었고 여기에 살면서 정말 실컷 놀러다닌 것 같다. 더욱이 오사카는 맛있는 음식으로도 유명해서 일본 음식들도 맘껏 먹었다. 한국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도 편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도 해야지 하고 알아봤지만 점점 노는 재미에만 빠져서 구하지 않고 있다가 방학 때 잠깐 공장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단기로 하기에도 편했기 때문에 잠깐 벌어서 여행을 가려고 하게 되었다. 라면 공장에서 조금하고 도시락공장에서 좀 오래 했었는데 도시락 공장에는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일하고 계셨다. 거기에서 일본에서 30년 이상을 살고 계시고 공장에 일한지 10년 정도 되가는 한국 아주머니가 계셔서 많이 챙겨주셨고 일할 때는 무섭기도 하셨지만 모든 아주머니들이 재미있고 친절하셔서 나를 즐겁게 일했었다. 그리고 역시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면 힘들었던 게 다 날라가버리는... 일본은 시급이 한국이 비해 높기 때문에 그 기쁨이 두 배였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규슈에도 놀러가고 돗토리에도 놀러가고 신나게 놀았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4학년 1학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커졌고 한국음식들도 많이 생각났다. 솔직히 초기에 비해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 믿기질 않는다. 그만큼 이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다. 오기 전에 비해 확실히 일본어도 많이 늘었고 일본에 대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부보다는 노는 것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지만 그 생활에 후회는 없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한국에 돌아가면 졸업반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겠지만 여기에서의 생활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요즘은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막상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곳이 정말로 많이 그리울 것 같다. 마지막까지 더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